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1.387>

JCCT 2024-1-45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진로불안,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구혜경*

Goo Hye Kyoung*

요약 본 연구는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상업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불안, 진로스트레스,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진로불안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불안은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을 통하여 진로준비를 위한 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진로불안, 진로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 진로정체감, 상업계 고등학교, 상업교육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nxiety, career stress,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vide basic data for students' career guidance and career education.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argeting third-year commercial high school students preparing for their care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s career anxiety increases, students' career stress increases. However, career anxiety was found to have no direct effect 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career stres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was found to be hig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s shows that career stress increases actions for career preparation through career identity.

Key words : career anxiety, career stres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identity, Commercial education

I. 서론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년 직업계

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졸업생 7만6760명 가운데 3만4686명(45.2%)이 진학했고, 2만2709명(29.6%)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나 진학, 입

*정희원,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주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1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1월 7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0일

Received: October 15, 2023 / Revised: November 7, 2023

Accepted: November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goohk@hanmail.net
School of Business, Seowon Univ, Korea

대 등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미취업 상태로 남은 학생은 1만6550명(21.6%)으로 2년 연속 수와 비율이 감소하였다. 미취업자는 2020년 2만4290명(27.0%), 2021년 1만8211명(23.1%)이며, 취업률은 2020년 50.7%에서 2021년 55.4%, 2022년 57.8%로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점점 많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통해 자신의 미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에 제대로 진로준비를 추구하거나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업계 고등학교인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실업율이나 취업난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돕고 적합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충분한 진로 탐색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등학생들의 상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특성화 고등학생들은 대학생들보다 사회의 진출시기가 빠른 만큼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진로선택이나 진로준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진로모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이 증가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도 함께 쌓여가고 있다. 진로에 대한 불안이나 진로스트레스는 누구나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는 아니다. 동일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겪게 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심하게 좌절되고, 극복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행동과 양상을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발판 삼아 주어진 상황에서 극복하고 성장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는 개인마다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의 자세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2]. 이러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진로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진로정체감이라고 보았다.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스스로의 능력, 흥미, 목표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기개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한다[3].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과정 및 행동을 의미한다[4].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진로탄력성 등의 변수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으나[5-7]. 또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목표를 즉 자신의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로정체감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의 단편적인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거나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진로에 대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한 연구들이 부족하였다. 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진로에 대한 인식과 발달이 시작되는 청소년기의 진로선택은 성인기와 같은 그 어느 발달 단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9]. 이와 같은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많은 질적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진로정체감,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 등과 같이 진로발달과 관련된 구체적인 변수들을 바탕으로 하는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 또는 구조적 관계에 대한 양적 연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관련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기에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진행하는 특성화 고등학생에 대한 심리적 측면의 연구가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불안,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이들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상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불안, 진로스트레스,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안이 진로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진로에 대한 불안이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진로준비행동은 한 개인이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진로나 직업에 대해정보를 수집하고 진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를 준비하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모두를 의미한다[4][10]. 진로준비행동은 어느 시기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경험과 진로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다[11].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행동의 집합체이며, 인지나 정서의 차원이 아닌 자신의 미래를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이다[4]. 진로준비에 따른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동들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가능성을 증대시켜 취업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12].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긴장으로 특징 지워지는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는 주관적이며 상상적인 위협을 의미한다[13]. 진로불안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다. 적정 수준의 진로불안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나친 불안은 진로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4]. 김범준(2011)은 취업에 대한 걱정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불행하다는 느낀다고 하였다[15]. 불안과 진로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불안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방황하면서 진로준비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14] 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에 대한 불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는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다[15]. 계속되는 경제 불황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고등학생들의 취업난이 계

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계고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진로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고 있을 것이다. 진로스트레스는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상급학교로의 진학 및 취업선택과 관련된 문제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신체적 및 심리적 평형상태가 무너지고 불안 및 긴장감 등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주관적 상태를 의미한다[16]. 이러한 진로스트레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및 탐색, 진로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통해 낮출 수 있다[17].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와 관련된 내적 및 외적 자원의 부족으로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18].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로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전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에 대한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고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로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19]. 고등학생들은 생활패턴의 변화, 입시 및 진로결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스스로의 능력, 흥미, 목표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기개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적성, 성격, 흥미, 능력 및 가치관 등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고,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이해는 직업의 의미, 종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정보를 의미한다[3]. 개인의 정체감 발달이 진로발달 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체감들 중에서 진로에 관련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화된 자기개념(self-concept) 발달이 요구된다고 하였다[21]. 또한 정체감은 개인의 욕구, 능력, 신념 및 개인의 내적이고 자기 구성적이며 역동적인 구조이고, 진로 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특성(picture)을 의미한다[22]. 즉 진로 정체감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업 또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따른 준비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진로선택을 미리 예견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진로준비에 필요한 행동적 노력이 필요하다[4].

현재 진로불안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이 다소 부족하지만 불안과 진로준비행동에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관계에 대해 더욱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찾고, 그 변수를 매개로 하여 진로교육이나 지도에 적용하여 진로교육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불안, 진로스트레스,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들 중에서 설문지의 90% 이상을 무응답이거나 동일한 번호로 체크하는 등의 불성실한 응답들은 수집된 자료에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응답자 중 남학생은 216명(35.1%), 여학생은 399(64.9%)로 상업계열의 특성상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측정

진로스트레스는 상업계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고등학교 생활에 신체적, 및 심리적 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로 보았다[15].

진로정체감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업 또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보았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Holland(1985)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로정체감을 진로목표, 진로흥미, 진로능력에 대한 도구를 인용하여 사용하였다[3-4][8].

진로준비행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수집활동, 컴퓨터, 어학 등의 자격증을 갖추는 자격준비활동, 그리고 인턴쉽이나 박람회 참가 등의 실천노력활동의 3가지 요인으로 진로준비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4][23].

진로불안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불안을 느끼는 심

리적 상태를 의미하며, 진로와 관련된 정서적 어려움 중에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진로문제척도(Emotional and Personality Career Difficulties Scale)을 이용하였다[24].

IV. 결과분석

1. 측정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들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 아이겐값 1 이상,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0.5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계수는 0.7이상으로 각 개념들은 모두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진로불안, 진로스트레스,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각각의 요인들에 대하여 단일차원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설문지의 측정항목들이 단일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한 결과, 집중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개념신뢰도(CR)과 AVE의 값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의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값과 각 개념들의 \sqrt{AVE} 값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분석에 이용되는 각 개념들은 판별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개념들을 바탕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에 의하면 연구모형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모두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확인적 요인분석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변수	항목	Esti	S.E.	C.R	p	CR	AVE
진로 불안	과정불안	1				.886	.723
	불확실성불안	.964	.053	18.282	.000		
	책임불안	.805	.046	17.388	.000		
진로 정체감	목표	1				.914	.780
	흥미	.872	.040	21.713	.000		
	능력	.853	.040	21.339	.000		
진로 스트레스	모호성	.940	.028	34.011	.000	.950	.772
	압박	1					
	외부갈등	.909	.029	31.223	.000		
진로 준비 행동	정보수집활동	1				.870	.690
	자격준비활동	.908	.053	17.287	.000		
	실천노력활동	.804	.049	16.552	.000		

모형적합도 : $\chi^2=250.638$, $df=59$, $p=.000$, $\chi^2/df=4.248$, $GFI=.939$, $AGFI=.906$, $NFI=.945$, $CFI=.957$, $TLI=.943$, $RMR=.051$, $RMSEA=.073$
 주) * $p<.05$

표 2.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검증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and Discriminant Validity

	√AVE	진로 불안	진로 스트레스	진로 정체감	진로준비 행동
진로 불안	.850				
진로 스트레스	.878	.646			
진로 정체감	.883	-.159	-.190		
진로준비 행동	.831	-.137	-.226	.788	

2.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지수는 $\chi^2=250.638$, $df=59$, $p=.000$, $\chi^2/df=4.248$, GFI=.939, AGFI=.906, NFI=.945, CFI=.957, TLI=.943, RMR=.051, RMSEA=.073등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지표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적합도지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분석결과

Table 3. Results of Analysis

경로	경로 계수	St. 경로 계수	S.E.	t	p
진로불안 → 진로스트레스	.720	.646	.049	14.657	.000*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051	-.063	.055	-0.935	.350
진로불안 → 진로준비행동	-.053	-.064	.045	-1.181	.237
진로스트레스 → 진로정체감	-.110	-.149	.047	-2.345	.019*
진로스트레스 → 진로준비행동	-.089	-.119	.039	-2.314	.021*
진로정체감 → 진로준비행동	.788	.775	.050	15.787	.000*

모형적합도 : $\chi^2=250.638$, $df=59$, $p=.000$, $\chi^2/df=4.248$, GFI=.939, AGFI=.906, NFI=.945, CFI=.957, TLI=.943, RMR=.051, RMSEA=.073
 *) $p<.05$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 진로불안과 진로스트레스의 경로계수는 $\gamma=.720(t=14.657)$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불안($\gamma=-.051$, $t=-.935$)과 진로준비행동($\gamma=-.053$, $t=-1.18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경로계수는 $\beta=-.110(t=-2.345)$,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경로계수는 $\beta=-.089(t=-2.314)$ 인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진로정체

감이 높아지고 진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경로계수는 $\beta=.788(t=15.787)$ 으로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s test를 이용하였다. 우선 진로불안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Sobel test의 통계량은 $Z=-2.311(p=.020)$ 으로 나타나 진로스트레스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s test의 통계량은 $Z=-2.315(p=.020)$ 로 나타나 진로정체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Sobel's 매개효과 검증

Table 4.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of Sobel

매개효과 경로	Z	p
진로불안 → 진로스트레스 → 진로정체감	-2.311	.020
진로스트레스 → 진로정체감 → 진로준비행동	-2.315	.020

V. 결론

최근 사회전반의 변화들로 인해 청년층의 실업률이 가속화되어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직업훈련이나 진로개발 등의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진로준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진로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서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 진로상담 및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진로스트레스,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계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진로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불안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선행연구[14]와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상업계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수록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적성, 성격, 흥미, 능력 및 가치관 등의 자신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아지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정보수집이나 탐색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모호성이 낮고, 내·외부갈등이 적을 때 스스로 자신의 장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직업 및 진로에 대해 진로탐색활동,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진로에 대한 불안은 직접적으로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지는 못하지만 진로스트레스의 매개를 통해 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보다는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정체감이 청소년기의 진로준비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불안,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취업이나 진로준비를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진로지도나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진로교육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연수나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진로지도 상담 프로그램과 직업정보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보유하여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진로 경로나 비전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선택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야로의 진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조사대상을 충청지역의

상업계 고등학생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 일반화의 한계의 문제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지역의 상업계 고등학생들을 선정하여 표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발달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거나 1회성으로 준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자신의 진로를 위해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노력해오고 있는지를 장기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J. S. Choi, and H. W., Chung,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School Life-Satisfaction, Stress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24, pp. 921-933, 2021.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24.921>
- [2] R. S. Lazarus, and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 [3] J. L. Halland, "Making Vocational Choices :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5.
- [4] B. W. Kim, and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9, No. 1, pp.311-333, 1997.
- [5] H. S. Oh, and J. H. Lee, "The Effect of Career Anxiet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enior Undergraduate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Life Goal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33, No. 1, pp.85-108, 2020.
- [6] S. J. Ryoo, and Y. H. Lee, "A Study on the Impact of Gri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Resilience, and Educational Achievement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3, No. 2, pp.135-164, 2023.
- [7] H. S. Yu,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go-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 23, No. 4, pp.1843-1854, 2021.
- [8] Y. J. Ko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9, No. 1, pp.485–492, January 2023.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485>.
- [9] D. A. Luzzo, “Value of Career–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Predicting Career–Decision 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0, pp. 194–199, 1993.
- [10] D. Jung, and A. J. Ho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Everyday Creativity on Career Preparation,” *Korean Education Inquiry*, Vol. 33. No. 2, pp. 29–59, 2015.
- [11] H. R. Lee, S. M. Kim, M. S. Cheun and S. K. Choi, “A Structural Analysis of Career Stress, Career Barriers,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1, No. 4, pp. 59–80, 2008.
- [12] Y. J. Chang and J. W. Yoo,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MZ Gener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4, No. 1, pp. 2255–2269, 2023.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4.1.159>.
- [13] C. D. Spielberger,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C. D. Spielberger(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1.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 [14] J. E. Chung, “The Medit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Anxie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University Athletes,” *Journal of Convergence Consilience*, Vol. 6, No. 3, pp.1–19, 2023. <https://doi.org/10.33090/SFCC.6.4.1>
- [15] B. J. Kim, “ A Study of Life Events Influenced on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5, No. 1, pp.115–135, 2011. (2011). DOI : 10.21193/kjspp.2011.25.1.007
- [16] M. J. Kim and J. Uhm,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 and Career Stres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Mediation Effects of Career Resilien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15, pp. 259–273, 2022.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5.259>
- [17] J. C. Brunstein, “Personal Goals and Subjective Well–being :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5, pp. 1061–1070, 1993.
- [18] Y. K. Chung and D. S. Kim, “Relationship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stiny Belief in the Prediction of Job–seeking Stres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15, pp.493–511, 2018.
- [19] M. H. Song and Y. J. An,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Futures of College Students,” *Global Creative Leader(Global Creative Leader : Education & Learning)*, Vol. 10, No. 1, pp.193–218, 2020.
- [20] H. J. Jeon and H. W. Chung,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d Latent Growth Modeling: The Mediating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on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s to School Life Adaptation,”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7. No. 2, pp.215–242, 2016. <https://doi.org/10.14816/sky.2016.27.2.215>
- [21] D. E. Super, “*Self-concepts in Vocational Development. In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edited by D. E. Supper, R. Starishevsky, N. Martlin and J. P Jorda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Princeton, NJ, 1963.
- [22] J. E. Marcia, “*Identity in Adolescence. In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edited by J. Adelson, John Wiley, NY, 1980.
- [23] G. B. Seong and J. Won, “Effects of Teaching Practicum Experiences on Pre–service English Teachers’ Career Ident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Barrier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Vol. 27, No. 5, pp.403–420, 2023. <https://doi.org/10.24231/rici.2023.27.5.403>.
- [24] N. Saka, I. Gati, and K. R. Kelly, “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Decision 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16, No.4, pp.403–424, 2008.